

국내·외 항만 및 품목 동향



국내·외 항만 및 품목 동향

1. 국내 항만 동향	02
2. 국외 항만 동향	09
3. 품목 및 산업 동향	15

국내 항만 주요 동향

- 부산항 신항 서컨테이너부두 운영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울산항만공사, 그린수소 물류허브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 인천항만공사, 아암물류2단지 전자상거래 특화구역 우선협상 기업과 사업추진 계약 체결

국외 항만 주요 동향

- 광저우항, 3개년(2021-2023) 개발 계획 발표
- 산 페드로만(San Pedro Bay) 주요 항만, 병목현상 최고조
- 로테르담항, 유니퍼(Uniper)와 그린수소 생산기지 개설 관련 MOU 체결

품목 및 산업 주요 동향

- '21년 6월 세계 항만 컨테이너 물동량 회복세 지속
- 상반기 건설수주 최대 기록, 반면 건설투자는 부진 지속
- 중국, 호주산 석탄 수입금지 조치 이후 석탄 공급 부족 직면

1. 국내 항만 동향

1) 부산항

① 부산항 신항 서컨테이너부두 운영 우선협상대상자 선정¹⁾²⁾

부산항만공사(BPA)는 지난 8월 20일 '동원신항컨테이너터미널 컨소시엄(이하 DPCT 컨소시엄)'을 부산항 신항 서컨테이너부두 운영사 우선협상대상자로 최종 선정함

- DPCT 컨소시엄은 북항 신항만부두 운영사인 동원부산컨테이너터미널과 신항 북측 3부두 운영사인 한진컨테이너터미널의 대주주인 (주)한진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이며 운영사 선정 공모에 단독 참여함
- 지난 19일 물류 및 회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화물 창출능력, 부두운영능력, 업체 신뢰도 등을 평가하는 적격심사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로 최종 선정함

BPA는 DPCT 컨소시엄과 임대차계약과 관련한 상호간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 1개월 이내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며 협상 종료 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예정임

한편 업계 안팎에서는 국적 운영사 선정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글로벌 해운동맹 등 대형 선사 없이 구성된 운영사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 외국 운영사 비중이 높은 신항에 국적 운영사가 들어오면서 기존 신항 3부두(한진)와의 통합 운영 가능성 및 DPCT 북항 물량의 신항 이전에 따른 산·북항 기능 재편 등에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다만 2·5단계(3선석)를 시작으로 '23년부터 순차적으로 개장 예정인 서컨테이너부두는 향후 2·6 단계(2선석), 북측 피더부두(1선석) 등을 모두 포함하면 총 6개 선석으로 연간 355만 TEU 이상의 물량 처리가 가능하나 대형선사 없이 해당 물량을 모두 유치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1) 부산항만공사 보도자료(2021.08.30.), <https://www.busanpa.com/kor/Board.do?mode=view&mCode=MN1445&idx=26620>(2021.09.13. 검색)

2) 부산일보(2021.09.07.), <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1090710181539016>(2021.09.13. 검색)

② 해양수산부, 부산항 컨테이너 임시 장치장 지속 공급 추진³⁾⁴⁾

해양수산부는 부산항을 이용하는 수출 화주들의 보관장소 부족 및 화물 보관 물류비 상승 등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임시 장치장을 추가 공급할 예정임

- 코로나19 영향으로 침체되었던 전 세계 교역량이 회복되면서 물동량은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으나 선박 부족 및 항만 적체로 인해 컨테이너 박스 회전률 등이 하락하면서 부두 내 장기 장치되는 화물이 증가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주요 컨테이너터미널 운영사들이 부두 내 화물 반입을 제한하면서 수출화물 화주들이 장치장 부족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음

3) 해양수산부 보도자료(2021.09.01.), <https://www.mof.go.kr/article/view.do?articleKey=42963&searchSelect=title&searchValue=%EB%B6%80%EC%82%B0&boardKey=10&menuKey=971¤tPageNo=1>(2021.09.13. 검색)

4) 부산항만공사 보도자료(2021.08.13.), <https://www.busanpa.com/kor/Board.do?mode=view&mCode=MN1445&idx=26620>(2021.09.13. 검색)



- ✎ 기존 임시 장치장에 추가하여 신항 서컨테이너부두 배후단지 일부(4만㎡, 1,400TEU)와 북항 우암부두 일부(1만㎡, 1,900TEU)를 추가 공급할 예정임
- 현재 해양수산부와 BPA는 신항 서컨테이너부두 배후단지 일부(7만㎡, 2,450TEU)와 안골 장치장(4만㎡, 1,400TEU) 및 북항 우암부두 해양산업클러스터부지 일부(1만㎡)를 임시 장치장으로 운영하고 있음
- ✎ 또한 해양수산부는 부산항 화물 보관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수출화물 보관 장소를 지속 공급할 예정이라 밝힘
- 신항 서컨테이너 배후단지 38만㎡ 중 잔여부분인 27만㎡를 순차적으로 공급하는 한편, 3단 이상 적재가 가능한 화물보관 전용 장치장도 연내 구축할 계획임
- 북항 역시 우암부두 잔여 가용부지(2만㎡)에 대해 보관장소 활용 상황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공급할 예정임

2) 인천항

① 인천항만공사, 아암물류2단지 전자상거래 특화구역 우선협상 기업과 사업추진 계약 체결⁵⁾

- ✎ 인천항만공사(IPA)는 지난 9월 6일 (주)로지스밸리HTNS와 인천항 아암물류2단지 전자상거래 특화구역 입주 사업 추진계약을 체결함
- 전자상거래 특화구역은 인천항을 전자상거래 특화항만으로 육성하기 위해 '20년 8월 해양수산부가 지정함
- 금회 계약으로 (주)로지스밸리HTNS는 정식 입주대상기업으로 전환되며 관련 인허가 및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이후인 '22년 상반기에는 전자상거래 특화물류센터를 착공할 예정임
- 해당 물류센터는 전자상거래 환적화물 운송 및 글로벌 전자상거래 물류센터(GDG, Global Distribution Center)로 운영될 계획임
- ✎ 전자상거래 특화 화물 물류단지 조성은 인천항이 전자상거래 특화항만으로 도약하는데 일조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24년 물류센터가 본격 운영된 이후에는 연평균 2만 2천TEU 이상의 물동량이 신규 창출 될 것으로 전망됨

② 인천항 항만시설 소방방재 능력 향상을 위한 워킹그룹 운영⁶⁾

- ✎ IPA는 항만시설에 대한 화재 예방과 관리체계 개선을 위해 민·관·공이 참여하는 워킹그룹의 운영을 시작함
- 항만시설 소방방재능력 향상 워킹그룹은 인천소방본부, 한국소방안전원, 방재시험연구원, 서울디지털 대학교 등 5개 기관의 전문가 총 8명으로 구성되어 있음
- 워킹그룹 운영결과와 항만시설 소방방재 대책 수립에 활용될 계획이며 관련 제도 개선 및 체계 마련에 적극 활용될 예정

5) 인천항만공사 보도자료(2021.09.06.), <https://www.icpa.or.kr/article/view.do?articleKey=19651&searchSelect=title&boardKey=217&menuKey=400¤tPageNo=1> (2021.09.17 검색)

6) 인천항만공사 보도자료(2021.07.11.), <https://www.icpa.or.kr/article/view.do?articleKey=19427&boardKey=217&menuKey=400¤tPageNo=1> (2021.09.17 검색)

3) 여수·광양항

① YGPA, 포스코와 자원순환 프로젝트 업무협약 체결⁷⁾

☀ 여수광양항만공사(YGPA)는 포스코광양제철소, 효성티앤씨와 '광양만권 자원순환 프로젝트' 업무협약을 지난 8월 31일 체결함

- 이번 협약은 광양만권에서 발생하는 페트병 등을 수거하여 친환경 제품 생산 등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체계 구축을 통해 육상 및 해상 폐기물의 재활용 촉진과 환경보호 실천을 위해 추진됨
- 이에 포스코는 제철소 산단 내 투명 페페트병 분리배출 및 별도 수거, 선별 체계를 구축하고 YGPA와 함께 사회적 기업을 통해 리사이클링 제품의 구매를 추진하기로 함
- YGPA는 금번 협약으로 그 간 여수광양항에서 추진해왔던 선박 배출 해양플라스틱의 수거 및 자원 순환 사업을 광양만권으로 확대시켜 육상 및 해상의 자원순환 체계를 구축할 방침임

7) 여수광양항만공사 보도자료(2021.09.01.), [https://www.ygpa.or.kr/kr/ygpa/public_corporation_news/public_corporation_news/?boardId=bbs_0000000000000213&mode=view&cntId=996&category=\(2021.09.13. 검색\)](https://www.ygpa.or.kr/kr/ygpa/public_corporation_news/public_corporation_news/?boardId=bbs_0000000000000213&mode=view&cntId=996&category=(2021.09.13. 검색))

4) 울산항

① 울산항만공사, 항만분야 공공데이터 협의회 구성⁸⁾

☀ 울산항만공사(UPA)는 공공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해 부산·인천·여수광양·경기평택 항만공사와 '항만분야 공공데이터 협의회'를 구성함

- 8월 26일 첫 회의가 열렸으며, '항만분야 신규 데이터 개방 및 발굴을 위한 전략적 대응 방안 공유'와 '항만분야 데이터 활용도 제고를 위한 협업과제 발굴' 등 항만분야 특화 공공데이터 정책 및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짐
- 협의회는 향후 활용 가치가 큰 항만물류 데이터 및 최신 공공데이터 정책 정보를 공유하고, 항만분야 협업과제 발굴 등을 위해 항만공사 간 협력할 예정임

② 울산항만공사, 그린수소 물류허브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⁹⁾

☀ UPA는 8월 26일 한국동서발전(주), 롯데정밀화학(주), SK가스(주), 현대글로비스(주)와 함께 울산항 그린수소 물류허브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함

- 이번 협약은 탄소중립 수소 경제 이행을 위해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이 협력하여 '30년까지 '해외 생산/구매~해상운송~저장~유통~수요처'를 아우르는 '해외 그린수소 공급망 및 물류 생태계'를 울산항에 선제적으로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함

8) 울산항만공사 보도자료(2021.08.26.) [https://www.upa.or.kr/bbs/view.do?bbsId=BBS_000000000000060&mId=00100500200100000&dataId=13221\(2021.09.13. 검색\)](https://www.upa.or.kr/bbs/view.do?bbsId=BBS_000000000000060&mId=00100500200100000&dataId=13221(2021.09.13. 검색))

9) 울산항만공사 보도자료(2021.08.26.) [https://www.upa.or.kr/bbs/view.do?bbsId=BBS_000000000000060&mId=00100500200100000&dataId=13220\(2021.09.13. 검색\)](https://www.upa.or.kr/bbs/view.do?bbsId=BBS_000000000000060&mId=00100500200100000&dataId=13220(2021.09.13. 검색))



- 그린수소는 부생수소나 LNG 개질수소와 달리 재생에너지에서 나온 전기로 생산하는 수소이며, 탄소배출이 전무한 수전해 수소임
- 수소 도입을 위해서는 선박과 수소를 취급할 수 있는 항만 내 저장시설 구축이 필수적이며, 울산항은 국내 1위 액체물류 중심 항만으로서 탱크터미널, 에너지 물류 기업 등 해외 수입 수소 도입에 적합한 인프라와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음
- 🌊 UPA는 수소 취급 터미널 조성을 위해 국내 수소 대표 기업과 공공기관 간의 협력 체계를 구축할 예정임
- 향후 협의체 참가기업들은 해외 암모니아 구매 및 운송, 유통, 수요처 등 구체적 협력 방안을 정하여 추진할 예정이며, UPA는 울산항 내 터미널 구축을 위한 부지 및 항만시설을 확보할 계획임
- UPA는 항만기본계획 상 매립을 통해 조성 예정된 울산 북신항 액체화물부두 2, 3번 선석을 수소 전용 시설로 구축한다는 방침이며, 저장시설인 수소 탱크터미널은 업체 간 합작법인을 구성하여 건설하는 방안을 계획 중임
- 울산항을 통해 도입될 수소는 암모니아 상태로 도입하여 직접 활용하거나 수소로 분해·추출하여 활용하는 방식을 병행할 예정임
- 그 외 해외 수소 도입 실증사업 유치, 공동 연구, 협업 저변 확대 등 장기적인 목표 달성을 위해 협의체를 구성하여 상호 협력을 이어나갈 계획임

5) 평택·당진항

① 경기평택항만공사, 평택항 통해 수출판로를 개척하는 중·소 수출기업 지원¹⁰⁾

- 🌊 경기평택항만공사는 '2021년 중·소 수출기업 글로벌 점프업 지원사업'의 참여기업을 모집함
- 평택항을 통해 해외 판로개척을 희망하는 중·소 수출기업에게 수출 단계별 맞춤 지원을 통해 수출 경쟁력 제고 및 판로 확대를 지원할 예정임
- 해당 사업은 중·소 수출기업이 수출 및 해외 판로를 개척하면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및 코로나 19 위기 극복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며, 사업은 총 2개 분야 4개 항목으로 '홍보 및 바이어 매칭(외국어 카탈로그·홍보물 제작, 전시회 참가, 통번역)', '물류비 지원' 등임
- 지원대상은 '홍보 및 바이어매칭' 분야는 평택항 이용실적이 있는 중소수출기업이며, '물류비 지원' 분야는 평택항 신규 이용 기업임
- 지원사업에 선정된 기업은 공사에 제출한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비 범위 내에서 수행업체와 해외 판로개척사업을 추진하고, 소정의 정산절차를 거쳐 연간 최대 30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 받게 됨

10) 경기평택항만공사 보도자료(2021.08.26.), [http://www.gppc.or.kr/gppc/board/boardView.do?menuId=101020101&cms_site_id=KOR&cms_group_id=101&site_language=%2Fgppc%2FmembersMainview01.do%3Fcms_site_id%3DKOR&searchCondition=all&searchKeyword=&survey_ty=&site_link=%EC%84%A0%ED%83%9D%ED%95%98%EC%84%B8%EC%9A%94&boardId=101020101&dataId=4330&pageIndex=1\(2021.09.13. 검색\)](http://www.gppc.or.kr/gppc/board/boardView.do?menuId=101020101&cms_site_id=KOR&cms_group_id=101&site_language=%2Fgppc%2FmembersMainview01.do%3Fcms_site_id%3DKOR&searchCondition=all&searchKeyword=&survey_ty=&site_link=%EC%84%A0%ED%83%9D%ED%95%98%EC%84%B8%EC%9A%94&boardId=101020101&dataId=4330&pageIndex=1(2021.09.13. 검색))

6) 포항항

① 포항시, 낚시어선 영업시간 제한 해제¹¹⁾

☀ 포항시는 야간항해장비를 갖춘 3톤 이상 낚시어선에 대하여 기존 오전 4시부터 오후 10시까지만 허용한 낚시어선 영업시간 제한을 해제함

- 포항시는 코로나19로 인한 낚시어선업자 소득 감소 등 낚시산업 경제침체로 인한 피해를 감안해 본 조치를 시행함
- 야간항해장비를 갖추지 않은 낚시어선, 3톤 미만 낚시어선, 갯바위와 같이 육지에 떨어진 곳으로 승객을 안내하는 낚시어선의 경우에는 기존 영업시간 제한이 유지됨
- 포항시는 포항해양경찰서, 해병대 제1사단, 포항어선조업국, 한국해양교통공단 등 관계기관과 각 지역별 낚시어선협회 대표의 의견을 수렴하여 본 조치를 결정함
- 포항시는 영업시간 제한 해제에 따른 안전문제에 대해서 주기적인 안전교육을 시행하고 관계기관 간 합동 안전점검을 강화해 나갈 방침임

11) 포항시 보도자료(2021.08.23.),

7) 대산항

① 제2항로 이용범위 대폭 개선¹²⁾

☀ 서산시는 대산항을 이용하는 컨테이너선박의 원활한 진출입을 위해 제2항로의 이용범위를 확대 또는 개선한다고 밝힘

- 기존 대산항의 입항을 위해서는 신도항로, 2항로, 3항로를 통해 주항로인 1항로로 진입할 수 있으며, 1만 5천 톤 초과 선박의 경우 원거리인 신도항로를 통해서만 진입이 가능했음
- 지난해 기준 신도항로를 이용한 1만 5천 톤 초과 컨테이너선박은 47척으로 전체 입항 선박의 20%에 달했으며, 대부분의 정기 선박이 북쪽(인천)에서 입항하고 있어 거리, 시간, 연료비 낭비 등의 불편을 초래해왔음
-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10월부터 대산항 2항로의 이용범위를 기존 총톤수 1만 5천 톤 이하에서 1만 8천 톤 이하로, 진입부 구간 제한 속력은 10노트에서 12노트로 확대 적용함
- 2항로 이용 개선을 통해 이용자들의 편의 개선과 더불어 물류비 절감 및 정시성 향상 등 대산항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한편, 서산시는 대산항 항만시설사용료 감면율을 올해 1월부터 기존 20%에서 50%로 상향했으며, 내년에는 70% 이상으로 정부에 적극 건의할 방침임

12) 국제뉴스(2021.09.12.),





자료: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21-08-28/u-s-port-problems-reach-worst-of-pandemic-amid-crush-of-imports>(2021.09.13. 검색)

8) 동해·묵호항

① 추석명절 대비 건설현장 및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 실시¹³⁾

☀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은 8월 30일부터 9월 10일까지 시설물, 여객터미널, 항만·어항 건설현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힘

- 이번 점검은 추석연휴 기간 동안 항만·어항시설을 이용하는 귀성객 및 관광객의 편의와 안전 등을 위하여 여객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의 손상·균열·위험여부, 안전관련 시설 등 현황 점검이 주 목적임
- 항만 및 어항 건설현장(7개소)의 안전점검을 지도·점검할 계획이며, 필요시에는 긴급 보수·보강 등 안전조치를 실시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최선을 다할 계획임
-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관계자는 안전한 추석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취약시설에 대해 지속적인 안전 관리를 실시할 예정임

13) 동해지방해양수산청(2021.08.30.), <https://donghae.mof.go.kr/article/view.do?articleKey=8423&boardKey=7&menuKey=428¤tPageNo=1>(2021.09.13. 검색)



9) 목포항

①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주요 여객선 항로의 표지시설 점검¹⁴⁾

☀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은 서남해역의 여객선 안전 운항 및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유·무인 등대 시설 204기에 대해 10월 15일까지 특별점검을 시행함

- 9월 추석 명절 귀성객과 10~11월 가을 행락철 여행객의 안전을 위해 주요 항로의 등표, 등대 등 항로표지시설 기능을 중점 점검하여 해상교통안전을 확보하고자 함
- 주요 점검 사항은 등명기 및 표체상태, 표지시설물 균열 및 기초, 옹벽, 축대 등 위험지역점검, 전파표지시설물 동작여부임
- 또한, 연휴기간 항로표지 사고 시 신속히 복구할 수 있도록 비상출동반을 편성할 계획임

14) 목포지방해양수산청 보도자료
(2021.09.08.), <https://mokpo.mof.go.kr/ko/board.do?menuidx=1316&bbsidx=32473>(2021.09.10. 검색)

10) 군산항

① 군산세관, 러시아산 고철화물의 신규 유치를 통해 군산항 물류 활성화 지원¹⁵⁾

☀ 군산세관은 러시아산 고철의 수입통관 및 화물 관리 규정과 절차에 대한 전반적인 컨설팅을 실시하여 군산항의 신규 화물 유치를 지원함

- 군산세관은 고철을 수입하여 가공 후 국내에 공급하는 업체 뿐 아니라 항만유관기관과 협업하여 러시아산 고철(철스크랩) 화물의 군산항 반입을 지원하였음
- 전기로의 원료로 사용되는 고철이 향후 연간 15만 톤 이상 수입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20년 기준 군산항이 처리한 고철 물량(19만 6천 톤)의 약 76%에 이르는 수준임
- 금회 신규 고철물량 유치로 약 30억원 이상의 물류 부가가치가 유발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중장비 기사의 신규 채용 등 신규 고용 효과도 기대되고 있음

15) 국제뉴스 (2021.09.16.), <http://www.gukj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311097>
(2021.09.17. 검색)



2. 국외 항만 동향

1) 중국

① 광저우항, 3개년(2021-2023) 개발 계획 발표¹⁶⁾¹⁷⁾

중국 광저우시는 최근 광저우항 3개년 개발 계획을 발표하면서 난사항을 중심으로 지원 인프라 구축을 가속화할 방침이라 밝힘

- '23년까지 총 물동량 6억 6,000만 톤, 컨테이너 2,550만 TEU 처리를 목표로 난사항, 난사항 철도, 난사 국제물류센터 구축에 박차를 가할 예정임

광저우항의 복합 운송 능력을 강화하고 이와 함께 국제협력 등을 통해 항만의 서비스 역량과 경쟁력을 제고할 계획임

- 해상-철도 복합 운송 및 해상-하천 복합 운송을 크게 발전시킬 계획이며 국내외 해운업과 항만업계가 광저우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지원할 계획임
- 그리고 시범 자유무역구역(FTZ)과 종합보세구역 등 국제협력 플랫폼을 통해 컨테이너 물류 운영을 강화함으로써 국제 컨테이너 운송 허브로서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방침임
- 또한 국제 크루즈 산업 발전에 우선권을 부여하여 크루즈 관광실험 구역을 건설하고 중소 크루즈 항로 등을 개설할 예정임

한편 '20년 광저우항의 총 물동량은 6억 3,600만 톤으로 전년 대비 22.1% 증가하였으며 컨테이너 역시 2,351만 TEU로 같은 기간 33.4% 증가함

16) Seatrade Maritime News(2021.08.20.), [https://www.seatrade-maritime.com/ports-logistics/guangzhou-port-eyes-660m-ton-cargo-throughput-2023\(2021.09.13. 검색\)](https://www.seatrade-maritime.com/ports-logistics/guangzhou-port-eyes-660m-ton-cargo-throughput-2023(2021.09.13. 검색))

17) Xinhua Silk Road,(2021.08.20.), [https://en.imsilkroad.com/p/323359.html\(2021.09.13. 검색\)](https://en.imsilkroad.com/p/323359.html(2021.09.13. 검색))

2) 아시아

① NYK, 선원용 전자화폐 플랫폼 MarCoPay 출시¹⁸⁾

일본의 글로벌 선사인 NYK는 선원용 전자화폐 플랫폼인 'MarCoPay'(이하 마르코페이)를 출시했다고 발표함

- 마르코페이는 스마트폰 앱(web)에서 QR코드를 사용해 전자결제, 국제송금, 현금화 등을 할 수 있는 해상물류 전용 전자화폐 플랫폼으로, 지난해 9월부터 운용되기 시작함
- NYK는 세계 최초로 마르코페이를 이용해 선원들의 급여를 지급하기 시작했으며 이 전자화폐는 급여의 현금 지급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기존 선박에서는 선원 급여 지급 및 일용품 구매 등에 대부분 현금이 사용되고 있으며, 1회 출항시 일반적으로 6~10개월 정도의 긴 시간을 선박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운용되는 현금은 약 8,500억 원 수준에 달함

18) ANI news(2021.09.11.), [https://www.aninews.in/news/world/asia/japan-nyk-launches-marcopay-electronic-money-platform-for-seafarers20210911131844/\(2021.09.13. 검색\)](https://www.aninews.in/news/world/asia/japan-nyk-launches-marcopay-electronic-money-platform-for-seafarers20210911131844/(2021.09.13. 검색))



- 이럴 경우 현금 관리가 어렵고, 특히 도난 및 분실의 우려가 있으며, 본국 및 가족들에게 송금시 고액의 수수료가 발생함
- 또한 선원들은 선박의 항만 정박시, 은행 및 금융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으나, 현재 코로나19와 같은 비상상황에서는 금융서비스 이용에 한계가 있음
-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르코페이는 장래 글로벌 선사들의 선박으로 확대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으며, 향후 대출 서비스, 보험, 치료서비스, 부동산 등 사용범위도 확대 추진할 예정임

② 자와할랄네루항, 8월 컨테이너 처리량 증가¹⁹⁾

- 📌 '20년 8월, 자와할랄네루항의 컨테이너 처리량은 전년 동월(35만 2,735TEU) 대비 28.45% 증가한 45만 3,105TEU를 기록함
- 2021-2022 회계연도의 첫 5개월('21.4~'21.8) 기준, 자와할랄네루항만에서 취급된 컨테이너의 처리량은 225만 943TEU로 전년(154만 4,900TEU) 대비 45.70% 증가한 수치임
- 특히 자와할랄네루항 내 나바세바 게이트웨이 터미널(NSIGT)은 9만 8,473TEU를 처리하여 개장(1989년) 이후 가장 많은 컨테이너를 처리함
- 동 기간 총 물동량 기준으로는 3,045만 톤을 처리하여, 2,168만 톤을 처리한 전년 대비 40.42% 증가하였음

③ 방글라데시 치타공(Chittagong)항, 화물 취급 비용 및 항만 노동자 임금 인상²⁰⁾

- 📌 지난 9월 13일 개최된 노사정 회의에서 치타공항만을 기항하는 해운사와 부두운영사간의 오래된 갈등 해소를 위해 항만 근로자들의 임금 10% 인상이 의결됨
- 최근 방글라데시의 물가가 크게 상승하여 부두운영사들은 근로자들의 임금인상 압박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었음
- 그동안 고정된 임금과 화물취급 비용이 부재하여 치타공항만공사 (Chittagong Port Authority, CPA)가 해운사와 부두운영사간의 갈등을 중재해 왔음
- 📌 항만근로자들의 임금인상으로 인해 컨테이너와 벌크화물의 취급 비용이 각각 4.5%, 5.8% 인상됨
- 이에 금회 노사정 회의결과를 수용한 방글라데시 해운사협회(Bangladesh Shipping Agents Association, BSAA)는 방글라데시의 연간 인건비 상승률(10% 대) 만큼 화물 취급비용이 지속적으로 상승된다면 향후 방글라데시의 항만경쟁력은 약화 될 것이라고 우려함

19) JIFFA(2021.09.10.), <https://www.jiffa.or.jp/en/news/entry-7293.html>(2021.09.13. 검색)

20) Container News(2021.09.14.), <https://container-news.com/chittagong-shipping-agents-to-pay-higher-bills-as-labour-wages-went-up/>(2021.09.17. 검색)



3) 미주

① 산 페드로만(San Pedro Bay) 주요 항만, 병목현상 최고조²¹⁾

☀ 미국의 아시아 교역 관문이자 산 페드로만의 주요 항만인 로스앤젤레스(LA)항과 롱비치(LB)항에 입항하기 위해 대기하는 선박의 수가 최고치를 기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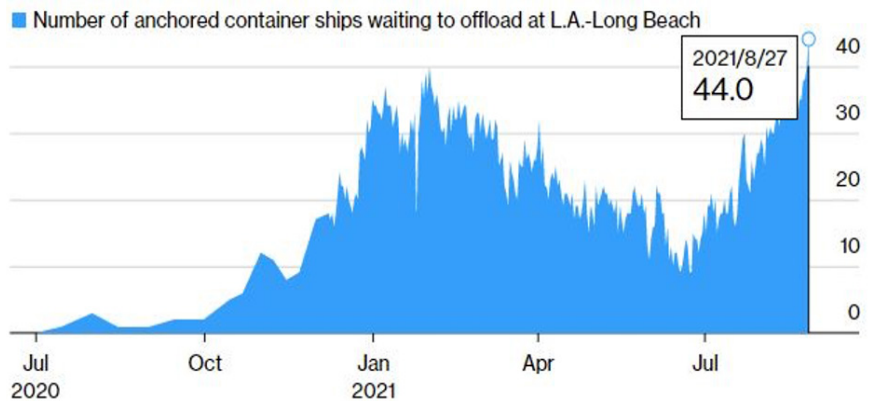
- 코로나19로 위축됐던 소비가 늘어나면서 지난해 11월 이후 LA항과 LB항의 화물 적체가 지속되고 있음
- 산 페드로만 관계자에 따르면 8월 27일 금요일 44척의 컨테이너선이 LA항과 LB항 입항을 위해 항만 밖에 정박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당초 2월에 기록한 40척을 넘어섬
- LA항 입항을 위해서는 8월 중순 평균 6.2일 대기해야 했으나 8월 말에는 7.6일로 증가함

☀ 중국의 수출화물이 증가하는 시기를 맞아 미국 항만의 병목현상이 가중되고 있음

- 10월 중국의 항금연휴를 앞두고 8~9월은 중국 수출 물동량이 증가하는 시기이며, 항만에서 내륙으로의 수송이 원활하지 못한 미국은 수입 물동량의 증가로 항만에서의 병목현상이 심해지고 있음

21) Los Angeles Business Journal(2021.08.28.),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21-08-28/u-s-port-problems-reach-worst-of-pandemic-amid-crush-of-imports>(2021.09.13. 검색)

산 페드로만에 정박 중인 입항 대기 선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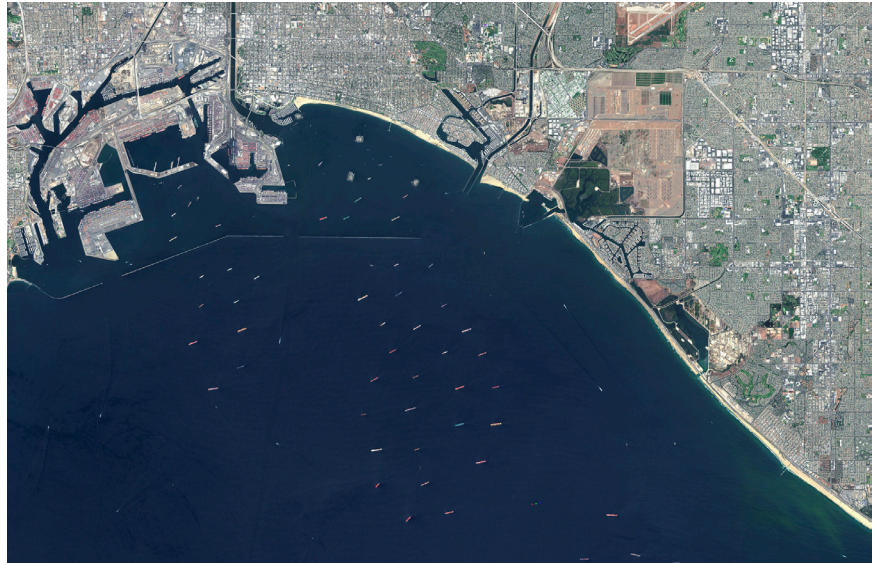


Source: Marine Exchange of Southern California & Vessel Traffic Service L.A./Long Beach

자료: 블룸버그(2021.08.28.),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21-08-28/u-s-port-problems-reach-worst-of-pandemic-amid-crush-of-imports>(2021.09.13. 검색)



산 페드로만 입항 대기 선박
(8월 26일)



자료: 블룸버그(2021.08.28.),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21-08-28/u-s-port-problems-reach-worst-of-pandemic-amid-crush-of-imports>(2021.09.13. 검색)

4) 유럽

① 로테르담항, 유니퍼(Uniper)와 그린수소 생산기지 개설 관련 MOU 체결²²⁾

🌱 로테르담항은 지난 6일 독일의 에너지 기업인 Uniper와 마스블락테(Maasvlakte) 지역 내 배후단지에 그린수소 생산공장을 개발하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체결함

- 해당 배후단지는 로테르담항을 비롯한 네덜란드 국가 수소 인프라 및 네덜란드 남단의 체멜롯(Chemelot) 지역까지 파이프라인으로 연결되어 있어 연결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며, 북해 풍력 발전지역과 가까워 에너지 공급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음
- 로테르담항은 대규모 수소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북서유럽 수소 허브로 발전시킬 계획임

22) Port of Rotterdam(2021.09.06.), <https://www.portofrotterdam.com/en/news-and-press-releases/cooperation-uniper-and-port-of-rotterdam-authority-in-production-green>(2021.09.10. 검색)



5) 오세아니아

① 멜버른항, Webb Dock East(WDE) 부두 연장²³⁾

- ☀ 멜버른항은 WDE 4·5번 선석을 연장하여 더 많은 선박과 대형 선박이 접안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임
 - 해당 부두의 길이는 총 660m로 길이 300m급 선박 2척이 동시에 접안 가능하나 최근 멜버른항에 길이 300m 이상의 대형 선박 기항 비중이 높아지면서 해당 부두에서 선박 1척만이 접안하고 있는 실정임
- ☀ 불필요한 구조물 제거 등의 공사가 포함되며, 해당 프로젝트가 최종 완료되면 부두길이 기존 660m에서 731m로 연장되어 터미널 운영 능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 부두 연장에는 총 2년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공사가 완료되면 대형 선박 2척의 동시 수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 ☀ 한편 해당 공사는 15억 달러 규모의 ‘멜버른항 30년 프로젝트(2050)’에 포함된 하위 프로젝트임
 - ‘멜버른항 30년 프로젝트(2050)’는 항만의 공급 확대를 위해 배후 철도 개발 및 부두 업그레이드, 신규 컨테이너 터미널 건설 등 여러 인프라 개발 계획을 포함하고 있음

Webb Dock East
부두 연장 구역



23) Infrastructure Magazine(2021.09.07.), <https://infrastructuremagazine.com.au/2021/09/07/port-of-melbourne-to-extend-webb-dock-east-berth/>(2021.09.13. 검색)

자료: Port of Melbourne, 2050 Port Development Strategy, KMI 제작성 <https://www.portofmelbourne.com/facilities-development/port-development-strategy/>(2021.09.13. 검색)

6) 아프리카

① 탄자니아항만 현대화 성과²⁴⁾

✎ 탄자니아 대사관의 성명에 따르면 올해 2월과 7월 사이 탄자니아 항만의 수입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이는 항만 현대화 프로젝트 성과의 일환이라 밝힘

- 특히 중국 항만업체가 주도적으로 현대화 작업을 진행한 다르 에스 살람(Dar es Salaam)항과 무트와라(Mtwara)항에서의 성과가 두드러지며 해당 항만의 '21년 2월~7월 항만 수익은 2억 2,9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300만 달러 증가함
- 다르 에스 살람항은 총 7개의 선석에 대한 현대화가 진행되었으며 이로 인해 최대 7만 톤급 대형 선박 접안이 가능하며 연간 처리량은 1,770만 톤으로 증가함
- 무트와라항은 300m 규모의 부두를 추가로 건설하고 화물 야드 구역을 개조함

✎ 현대화 프로젝트로 인해 탄자니아 항만의 2~7월 항만 물동량은 887만 톤으로 전년 대비 약 13.3% 증가함

-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현저한 물동량 감소세를 기록하고 있는 아프리카에서 이 같은 증가세는 기록적인 상승세라고 밝힘
- 같은 기간 기항한 선박 척 수 역시 2,206척으로 전년 대비 818척 크게 증가함

✎ 한편 이외에도 다르 에스 살람항의 선박 진입로 확장 및 탕가항의 대형 선박 수용을 위한 터미널 개발 프로젝트 등이 진행 중에 있음

- 탕가항 프로젝트는 오대호와 더 넓은 동아프리카 지역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카레마(Karema) 신규 터미널을 건설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으며 해당 프로젝트의 공정률은 50%로 '22년 3월에 완공 예정임

24) Africaports(2021.09.01.) [https://africaports.co.za/2021/09/05/africa-ports-ships-maritime-news-6-september-2021/#4128\(2021.09.13. 검색\)](https://africaports.co.za/2021/09/05/africa-ports-ships-maritime-news-6-september-2021/#4128(2021.09.13. 검색))



3. 품목 및 산업 동향

1) 컨테이너

① '21년 6월 세계 항만 컨테이너 물동량 회복세 지속²⁵⁾

📍 '21년 6월 전 세계 항만 컨테이너 처리량 지수(Global Container Port Throughput Indices; GCPTI)²⁶⁾는 전월 대비 2.2% 감소하였으나 전년 동월 대비 11.1% 증가한 138.9p를 기록함

- 전월 대비 하락하였으나 코로나19 이전인 '19년 6월 수치와 비교해도 5.0% 증가한 수치로 코로나 19 여파에서 벗어나 완전한 회복세를 지속하고 있다고 판단됨
- 이러한 성장세는 4분기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한편, 4분기에는 다소 둔화될 것으로 전망함

📍 지역별로 살펴보면 모든 지역에서 전년 대비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전월 기준으로는 아프리카를 제외하고 모두 감소세를 기록함

- 중국의 6월 컨테이너 처리량 지수는 149.9p로 전년 대비 4.6% 증가, 전월 대비 0.9% 감소하였으나 이는 옌토히항의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인한 항만 폐쇄에 따른 영향으로 보여짐
- 중국을 제외한 아시아 지역은 전년 대비 11.9% 증가, 전월 대비 2.4% 감소한 133.4p를 기록하였으며 싱가포르항, 포트클랑항, 부산항 등 3대 허브항만 모두 전월 대비 감소세를 기록함
- 북미 지역의 경우 6월 처리량 지수는 156.7p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던 5월 171.2p 대비 8.5% 하락하였으나 전년 대비 27.5% 증가함
- 중국 남부 지역의 항만 폐쇄에 따른 영향이 선사 전체 일정에 영향을 미치면서 아시아 및 북미 지역 물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됨
- 한편 유럽의 경우 6월 처리량 지수는 전월 대비 0.1% 감소, 전년 대비 14.8% 증가한 123.4p를 기록하였으나 지난 3개월간 큰 폭의 변화가 없어 다른 지역에 비해 회복 속도가 더딘 것으로 나타남

25) 한국해운신문(2021.08.30.) [http://www.maritimepres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6294\(2021.09.13. 검색\)](http://www.maritimepres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6294(2021.09.13. 검색))

26) 2012년 1월의 전 세계 항만의 컨테이너 처리량을 100으로 놓고 매월 컨테이너 물동량의 증감을 지수화한 것으로 Drewry가 전 세계 235개 이상의 컨테이너 항만, 전 세계 컨테이너 물동량의 75% 이상을 분석하여 수치화 하고 있음



2) 양곡

① 8월 주요 곡물 수입단가는 식용과 사료용 모든 품목이 상승세를 기록함²⁷⁾

☞ 식용 중 채유용 콩의 수입단가가 전월대비 큰 폭의 증가세(18.2%)를 기록하였으며 사료용의 밀(7.8%)과 옥수수(6.9%), 대두박(3.4%)의 수입단가도 각각 전월대비 상승함

- 8월 밀(식용)과 옥수수(식용)의 수입단가는 톤당 326달러, 341달러로 각각 전월대비 1.6%, 8.2% 증가하였으며 채유용 콩의 수입단가는 전월 대비 18.2% 증가한 486달러/톤을 기록함
- 사료용 밀(톤당 321달러)과 옥수수(톤당 296달러)의 수입단가는 모두 전월 대비 각각 7.8%, 6.8% 상승하였으며 대두박의 수입단가 또한 전월 대비 3.4% 상승한 톤당 486달러를 기록함

② 8월 국제 곡물 선물가격지수 전월대비 0.8% 상승한 143.4 기록²⁸⁾

☞ 밀 주요 생산국의 생산량 하향 조정으로 8월 밀의 선물가격은 전월 대비 9.5% 상승한 267 달러/톤을 기록함

- 반면 옥수수의 선물가격은 주요 생산지인 미국 중서부 지역의 날씨 개선 등으로 전월대비 8.5% 하락한 218.달러/톤을 기록함
- 콩의 8월 선물가격 또한 전월 대비 3.2% 하락한 톤당 507달러를 기록, 가뭄을 겪고 있던 미국 콩 주산지지역의 기후 개선 전망이 선물가격 하락의 주요 요인으로 파악되고 있음

27) 농촌경제연구원 국제곡물 관측월보
9월호(2021.08.31.), [http://www.krei.re.kr:18181/board/market_trande/view/wr_id/6144/page/1\(2021.9.17. 검색\)](http://www.krei.re.kr:18181/board/market_trande/view/wr_id/6144/page/1(2021.9.17. 검색))

28) 농촌경제연구원 국제곡물 관측월보
9월호(2021.08.31.), [http://www.krei.re.kr:18181/board/market_trande/view/wr_id/6144/page/1\(2021.9.17. 검색\)](http://www.krei.re.kr:18181/board/market_trande/view/wr_id/6144/page/1(2021.9.17. 검색))



3) 시멘트

① 상반기 건설수주 최대 기록, 반면 건설투자는 부진 지속²⁹⁾

☀ '21년 상반기 국내 건설수주액은 통계 작성을 시작한 '94년 이래로 가장 많은 100조 원 이상을 기록함

- 건설경기 선행지표인 국내 건설수주는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증가세를 지속했으며, '21년 상반기 기준 전년 동기 대비 24.4% 증가하면서 역대 최대치인 102조 9천억 원을 기록함
- 전반적으로 공공 수주가 양호했으며 민간 건축 수주가 높은 실적을 기록함

☀ 반면, '21년 상반기 건설투자는 토목건설 부문의 투자 위축으로 1.5% 감소하는 등 부진이 지속되고 있음

- 건설경기 동행지표인 건설투자는 선행지표인 건설수주와는 달리 부진이 지속되고 있으며, '21년 상반기 기준 전년 동기 대비 1.5% 감소함
- 건설투자의 분기별 실적은 '21년 2분기에 1.2% 감소하면서 5분기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음
- 공종별로는 주거용과 비주거용 건축투자가 상반기에 회복하였으나, 토목 건설투자는 침체가 심화된 것으로 나타남
- 건설투자의 회복 속도가 예상보다 느린 상황이며, 이는 국제 유가의 불확실성 및 탄소배출 규제 강화 움직임으로 국내 산업플랜트 공사가 위축되었기 때문임

29)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산업브리핑 822호(2021.09.06.), [\(http://www.cerik.re.kr/report/briefing#\)](http://www.cerik.re.kr/report/briefing#)(2021.09.13. 검색)

4) 모래

① 부산신항 공사용 골재, 항만배후단지 조성시 옥망산 제거를 통해 공급³⁰⁾

☀ 부산신항 북 컨테이너 2단계 항만배후단지 조성사업 공사의 시공사가 선정됨

- 부산신항 북 컨테이너 2단계 항만배후단지 조성사업은 부지 내 옥망산의 토석을 채취하여 진해 신항(부산항 제2신항) 조성에 공급하고, 산을 절취하고 남은 면적 52만 2,565㎡를 항만배후단지로 조성하는 사업임
- 해당 사업은 전체 공사비가 6,400억 원에 달하는 등 신항 내 단일공사로는 최대 규모이며, 부산항만공사(BPA)는 설계와 시공 일괄입찰(턴키)방식으로 지난 2월 발주함
- 입찰에는 한라건설, 대우건설, DL이앤씨 등 3곳이 각각 컨소시엄을 구성해 경쟁을 벌여왔으며, 국토교통부 중앙건설기술심의회는 지난 9~10일 실시한 실시설계 적격자 선정심사를 통해 DL이앤씨 컨소시엄을 선정함

30) 부산일보(2021.09.12.), [\(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1091218125224500\)](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1091218125224500)(2021.09.13. 검색)



- BPA는 실시설계 적격자가 최종 선정됨에 따라 사전 준비를 거친 후, 내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며 공사에는 총 144개월(12년)이 소요될 예정임
- ☀ 바다모래 채취 중단으로 최근 항만공사용 골재 수급이 어려운 상황에서 항만배후 단지 조성과정에서 발생하는 석재를 진해신항 개발에 활용할 수 있게 됨
- 육망산은 신항 컨테이너터미널과 도로 조성 등을 위해 일부 절취됐으며, 현재 높이는 150m로 2,860만㎡ 규모의 바위가 남아있어 최대 4,000만㎡의 토석을 채취할 수 있을것으로 전망됨

5) 석탄

① 중국, 호주산 석탄 수입금지 조치 이후 석탄 공급 부족 직면³¹⁾

- ☀ 중국은 호주와의 무역갈등으로 지난해 10월부터 호주산 석탄 수입을 금지한 이후 전력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발전용 석탄 공급 부족에 직면함
- 호주는 중국이 사용하는 발전용 석탄의 약 50%를 들여오는 최대 수입국으로, 지난해 중국이 호주에서 수입한 석탄 물동량은 4,250만 톤에 육박함
- 그러나 코로나19 기원 및 책임론 등의 논란으로 중국과 호주 간 무역갈등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중국은 지난해 10월부터 호주산 석탄 수입을 전면 금지 조치함
- 이후 코로나19 상황이 다소 안정되고, 경기가 회복세를 보임에 따라 산업용 전력 수요가 급증하면서 중국은 발전용 석탄 공급 부족 사태에 직면함
-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는 올해 초부터 7월까지 중국의 총 전력소비가 지난해 동기 대비 15.6% 증가하였으며, 중국 내 발전소들이 늘어난 전력 수요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함
- 또한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의 대표적인 석탄 선적 항구도시인 칭황다오의 발전용 석탄 가격이 올해 7월 말 기준 톤당 1,009위안(한화 약 18만 원)까지 상승했으며 이는 '11년 이래 최고가이자 지난해 같은 시기의 두 배 이상 상승한 수준이라고 밝힘
- 이에 중국 정부는 올해 2억 5000만 톤 규모의 신규 석탄 생산 계획을 발표하는 등 자체 생산으로 공급난을 해결하겠다는 방침이지만, 당장의 전력난과 석탄 공급난을 해결하는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31) South China Morning Post(2021.09.07.),
<https://www.scmp.com/economy/china-economy/article/3147774/china-australia-relations-demand-coal-surges-how-long-can>(2021.09.13. 검색)



6) 철광석

① 세계 철광석 생산량 증가 전망³²⁾

- 📌 시장조사기관 Fitch Solutions에 따르면 세계 철광석 생산량은 '21년~'25년 연평균 3.6%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세계 철광석 생산량은 '25년, 호주 및 브라질의 증산으로 인해 '20년 생산량 대비 5억 7,100만 톤 증가한 총 10억 7천만 톤에 이를 전망임
- 철광석 생산량은 브라질이 '20년 3억 9,700만 톤에서 '25년 5억 4,200만 톤으로 증가, 호주가 '21년~'25년 동안 연평균 약 1.8%씩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한편, 중국도 호주산 철광석 수입에 대한 의존도를 경감하고 자급력을 강화하기 위해 생산량을 늘릴 것으로 예상됨

② 철광석, 기니의 군부 쿠데타로 인해 가격 상승³³⁾

- 📌 지난 5일 발생한 기니의 군부 쿠데타로 인해 기니 시만두(Simandou) 지역의 철광석 개발에 차질이 발생함
- 기니 시만두 프로젝트는 세계 최대 규모의 미개발 철광석 프로젝트로서 Fe 함량 65% 이상인 철광석이 약 860억 톤 매장된 것으로 추정됨
- 기존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한 개발 차질과 더불어 금번 쿠데타로 인해 어려움이 가중됨

32) 한국자원정보서비스(2021.08.27.), [https://m.kores.net/komis/trend/dailynews/resources/trendList.do?se_cd=130\(2021.09.10. 검색\)](https://m.kores.net/komis/trend/dailynews/resources/trendList.do?se_cd=130(2021.09.10. 검색))

33) 한국자원정보서비스(2021.09.07.), [https://m.kores.net/komis/trend/dailynews/resources/trendList.do?se_cd=130\(2021.09.10. 검색\)](https://m.kores.net/komis/trend/dailynews/resources/trendList.do?se_cd=130(2021.09.10. 검색))

7) 기타광석

① 니켈, 아연 등 주요 광물가격은 타이트한 수급상황으로 인해 상승세 기록³⁴⁾

- 📌 미국 연방준비제도(미연준)의 테이퍼링(자산매입 축소) 연내추진 가능성이 예상되는 가운데 니켈 및 아연의 재고량 감소 등 타이트한 수급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가격은 상승세를 보임
- 글로벌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는 금년 11월~내년 7월까지 미연준의 테이퍼링 추진 가능성을 기존 40%에서 70%로 상향 조정하는 등 연내 추진을 전망함
- 이에 따라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수요 둔화 및 중국의 제조업 경기지표 부진 등 하방압력이 발생 하였으나, 니켈과 아연은 주요 거래소의 재고량 감소추세 지속으로 가격 상승세가 나타남
- 니켈은 주요 거래소의 재고량 감소 및 중국의 전기차 시장 확대에 힘입어 '14년 5월 이후 처음으로 톤당 2만 달러를 돌파함
- LME(런던금속거래소) 니켈 재고량은 9월 2주차 기준 183,440톤으로 전주 대비 4.2%(연초 대비 25.6%) 감소하는 등 20주 연속 감소세로 타이트한 수급상황을 지속하고 있음
- 한편, 동의 경우 중국의 정련동 생산증가세 및 국가식량물자비축국의 전략물자 방출정책으로 인해 공급량이 확대되었으나, 수요측면에서 중국의 정련동 수입량이 감소하여 가격은 보합세를 보임

34) 한국자원정보서비스(2021.09.13.), [https://www.kores.net/komis/trend/weekresourcesnews/resources/trendRead.do?se_cd=144\(2021.09.14. 검색\)](https://www.kores.net/komis/trend/weekresourcesnews/resources/trendRead.do?se_cd=144(2021.09.14. 검색))

8) 목재

① 미이용 산림자원 제도개선 착수³⁵⁾

산림청은 '18년부터 시행해 온 미이용 산림자원(산림바이오매스) 제도에 대한 개선 방안을 올해까지 마련할 계획임

-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는 목재수확이나 숲가꾸기 등 산림경영활동 과정에서 활용 가치가 낮아 산림에 방치되거나, 산불, 병해충 등의 피해로 용도 가치가 현저히 낮아진 목재 산물과 부산물을 목재펠릿(압축연료)과 목재칩으로 제조하여 재생에너지원으로 만든 것임
- 산림청은 이 같은 재생에너지원을 적극 활용하기 위해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제도'를 도입한 바 있으며, 지난 6월부터 현행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제도의 이행현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착수함
- 또한, 산림청은 지자체, 국립산림과학원, 한국임업진흥원과 합동으로 현장 점검반을 구성해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생산현장 및 제조시설 운영 실태를 점검(8월 10일 ~ 8월 20일)함
-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수집, 유통, 제조 등 전반에 관한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내·외부 관계자 및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거쳐 올해 하반기에 최종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임

35) 산림청 보도자료(2021.09.09.), [https://www.forest.go.kr/kfswb/cop/bbs/selectBoardArticle.do?nttId=3162543&bbsId=BBSMSTR_1036&pageUnit=10&pageIndex=2&searchTitle=title&searchContent=&searchKey=&searchWriter=&searchWord=&ctgryLrds=&ctgryMdcls=&ctgrySmcls=&ntcStartDt=&ntcEndDt=&mn=NKFS_04_02_01&orgId=\(2021.09.13. 검색\)](https://www.forest.go.kr/kfswb/cop/bbs/selectBoardArticle.do?nttId=3162543&bbsId=BBSMSTR_1036&pageUnit=10&pageIndex=2&searchTitle=title&searchContent=&searchKey=&searchWriter=&searchWord=&ctgryLrds=&ctgryMdcls=&ctgrySmcls=&ntcStartDt=&ntcEndDt=&mn=NKFS_04_02_01&orgId=(2021.09.13. 검색))

9) 고철

① 고철, 자급률 최대치 기록³⁶⁾

국내 고철 자급률은 1~7월 기준 85.0%로, 역대 최고치인 '20년의 83.3%보다 1.7%p 상승함

- 국내 고철 자급률은 '12년 69.1%를 저점으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가 이어지고 있음
- 이는 제강업계가 올해 늘어난 생산을 수입 고철 대신 국내 공급 중심으로 충당하였기 때문으로 분석됨

36) 스크랩워치(2021.09.10.), <http://www.scrapwatch.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476>(2021.09.13. 검색)



10) 철재

① 미국, 한국산 스탠더드 강관에 대한 반덤핑 재산정 결과 발표³⁷⁾

- ✎ 미국 상무부는 '15~'16년 한국산 스탠더드 강관에 대한 업체별 반덤핑률을 현대제철은 30.85%에서 12.92%로, 세아제강은 19.28%에서 9.99%로 낮췄다고 밝힘
- 앞서 미국 국제무역법원은 해당 제품에 대한 특별시장상황(particular market situation, PMS) 적용이 적절하지 않음을 이유로 반덤핑 관세율 재산정을 미국 상무부에 지시함
- 이에 따라 지난 10일 미국 상무부는 반덤핑 재산정 최종 발표에서 해당 제품에 대한 특별 시장상황 적용을 철회함

37) 철강금속신문(2021.09.10.), <https://www.snm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83319>(2021.09.13. 검색)

11) 자동차

① 자동차산업연합회(KAIA), 국회의 '기후위기대응법' 제정에 대한 우려 표명³⁸⁾

- ✎ 자동차산업연합회(KAIA, Korea Automotive Industry Alliance)는 8월 1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의결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법'이 자동차 산업 생태계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이 예상된다고 우려를 표명함
- 기존에는 '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가 '18년 배출 대비 26.3%를 감축하는 것이었으나,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를 35% 이상 감축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법안을 심의·의결함
- 기존 전기동력차 전환달성도 어려운 상황에서 누적 보급목표를 정부의 385만 대로 늘리게 되면 '30년 전기동력차는 60만 대가 보급되어야 하며, 국산 물량은 40여만 대만 가능하기 때문에 20여만 대 수입이 불가피함
- '20년 국내 자동차 시장이 약 180만 대이며, 수입차 점유율(18.1%)이 지속된다고 가정할 때 국산차는 현재의 150만 대에서 '30년에는 전기차 40만 대를 포함하여 140만 대로 줄어들 전망임
- 이 경우, 부품업체는 내연기관차 시장 축소에 전기차 부품 수 감소라는 이중고를 겪으면서 최소한 현재보다 15% 이상의 매출 감소가 우려되며 생존여부가 불투명한 심각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음
- 일부 연구결과, 전기차 생산에 필요한 인력은 내연기관차 대비 38%면 충분한 것으로 나타나 이를 감안할 경우, 근로자 대량실직도 불가피함
- 또한, 한국GM과 르노삼성, 쌍용 등은 노사관계 등 경영여건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국내 전기차 생산이 쉽지 않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음

38) 자동차산업협회 보도자료(2021.08.24.), http://www.kama.or.kr/BoardController?cmd=V&boardmaster_id=Bodo&board_id=529&menuunum=0002&searchGubun=&searchValue=&pagenum=1(2021.09.13. 검색)



☀ 내연기관차의 전기차 급속 전환을 위해서는 발전/전력설비, 충전인프라 확충 등 사전준비가 충분히 먼저 이루어져야 함

- 현재 전기차 누적 보급은 17만 대에 불과하나 운전자들은 충전 불편을 호소하고 있으며, 향후 9년 이내 전기차가 누적 385만 대 이상으로 확대되려면 EU나 미국처럼 대대적 충전 인프라 확충을 위한 재정계획이 마련되어야 함
- EU는 자동차의 연비온실가스 기준 강화안 발표와 함께 '30년까지 350만 기의 충전인프라 구축 계획을 발표함
- 미국은 신차의 50% 수준을 전기동력차로 하라는 권고에 따라 추진하면서 75억 달러 규모의 충전 인프라 예산을 확보했고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850억 달러 규모의 추가 예산 법안을 발의함
- 우리나라의 '30년 수송부문 CO₂ 배출량 35.5% 감축('17년 대비)을 위해서는 약 395만 대의 전기차가 보급되어야 하며, 현재 수준의 전기차 대비 충전기 비율 50%를 유지할 시 '30년까지 충전소 구축에 최소 약 3조 3천억 원, 충전 불편 해소(충전기 비율 100%) 시 약 7조 원의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함
- KAIA는 선진국의 '30년 탄소감축목표 변경을 감안할 때, 우리의 목표 재정립이 불가피할 것이거나 속도가 문제이며, 급속한 탄소 감축방안이 미칠 수 있는 산업 위축이나 대량 실직 등 부작용에 대해 면밀한 검토와 이를 최소화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

12) 잡화

① '21년 7월 국내 기계 산업의 수출 금액은 전년 동월 대비 19.3% 증가한 191억 9,400만 달러, 수입 금액은 21.6% 증가한 121억 500만 달러를 기록³⁹⁾

☀ 7월 기계 산업 수출은 금속제품업을 제외한 모든 세부 업종에서 증가세를 나타냄, 주요 수출대상국 중 중국(-0.7%)으로 수출되는 기계 물량은 소폭 감소하였으나 미국(+66.0%), 일본(+15.9%), 베트남(+61.7%)으로의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함

☀ 7월 기계 산업 수입도 일반 기계업(-1.8%)을 제외한 전기기계업(+24.0%)과 정밀기계업(+37.9%), 수송기계업(+45.9%)등 모든 부문에서 전년 동기 대비 큰 폭의 신장세를 나타냄

(단위: 백만 달러, %)

'21년 7월 기계 산업
업종별 품목 동향

구분	'21. 7				'21. 1~7			
	수출		수입		수출		수입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기계 산업(합계)	19,194	19.3	12,105	21.6	129,154	25.0	81,884	25.4
일반기계업	4,458	16.4	3,629	-1.8	30,793	10.0	27,195	24.3
전기기계업	3,984	41.3	2,195	24.0	24,499	33.5	14,539	24.1
정밀기계업	1,533	9.7	2,867	37.9	10,957	22.9	17,958	31.1
수송기계업	8,389	16.9	2,812	45.9	52,915	33.9	18,299	26.9
조선	1,862	10.3	460	79.1	13,277	21.7	1,637	2.9
금속제품업	831	-4.3	601	25.8	5,991	8.1	3,893	7.9

주 : 증감률은 전년 동기 대비

39) 한국기계산업 진흥회, 기계산업 통계월보 9월호(2021.09.14.), [https://www.koami.or.kr/data/industryView.do\(2021.09.17. 검색\)](https://www.koami.or.kr/data/industryView.do(2021.09.17. 검색))

13) 유류·화학공업생산물

① LG화학, 글로벌 메이저 곡물 가공업체와 옥수수를 원료로 한 바이오 플라스틱 합작 공장 설립 추진⁴⁰⁾

☀ LG 화학은 4대 글로벌 메이저 곡물 가공 업체인 ADM(아처 데니얼스 미들랜드)사와 미국 현지에 바이오 플라스틱 합작 공장 설립을 추진하고 있음

- 한국 기업 최초로 원재료부터 제품까지 통합 생산 가능한 PLA(Poly Lactic Acid) 공장 건설을 추진하는 것으로 '25년까지 약 7만 5천 톤 규모의 PLA 공장이 미국 현지에 건설될 예정임
- PLA는 옥수수에서 추출한 글루코스(포도당)을 발효·정제해 가공한 원료로 만드는 대표적인 생분해성 플라스틱임, 100% 바이오 원료로 생산해 주로 식품포장 용기, 식기류 등에 사용되며 수개월 내 자연 분해되는 친환경소재임
- ADM은 전 세계 200여개국에서 농작물 조달시설을 운영하는 글로벌 곡물 가공기업으로 바이오 케미칼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원료인 글루코스 생산능력과 발효기술에 강점을 가지고 있는 기업임
- 금회 ADM과의 합작법인 설립은 바이오 원료를 활용한 고부가 가치 제품의 지속적인 생산과 사업 구조의 전환을 이끌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40) 한국석유화학협회 회원사동향(2021.09.14.),
https://www.kpia.or.kr/index.php/bbs/view/id/101621/page/1/term_id/6/v_mode/user
 (2021.09.17. 검색)



집필
내역

연구책임자

이기열 항만수요예측센터장

연구진

이수영 항만수요예측센터 전문연구원

김영훈 항만수요예측센터 연구원

이나영 항만수요예측센터 연구원

신정훈 항만수요예측센터 연구원

조성현 항만수요예측센터 연구원

감리

김범중 항만연구본부 명예연구위원

항만과 산업

국내·외 항만 및 품목 동향

발행일 2021. 9. 28

편집 겸 발행인 김종덕 원장 직무대행

발행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항만연구본부 항만수요예측센터
49111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301번길 26(동삼동)
전화 051) 797-4800 | 팩스 051) 797-4810
www.kmi.re.kr

편집디자인 공감
전화 070-4407-6252 www.grokw.net